
2023년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문화기반과

□ 심의개요

- 일 시 : 2023. 4. 27.(목), 14:00 ~ 18:05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2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 심의
- 심의안건 : 11개소 24작품(조각 13, 회화 11 / 신규 13, 재심의 11)

□ 심의결과

- 24작품 중 가결 19작품(조건부 19), 부결 5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중산동 1875-1(영종 지구 C7-1-1)	회화	숲속의 소리		○		조건부
	2		회화	맑고 향기로운 여정		○		조건부
	3		회화	CAR		○		조건부
2	4	계양구 작전동 415	조각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야기		○		조건부
3	5	송도동 172-6	회화, 영상	Media-space 1			○	
	6		회화, 영상	Media-space 2			○	
	7		회화, 영상	Media-space 3			○	
	8		회화	The other land 22-9		○		조건부
	9		회화	명경지수 -바라봄과 깨달음		○		조건부
	10		회화	달려가다		○		조건부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4	11	청라동 152-5,6	조각	Pink Panda		○		조건부
5	12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RC1	조각	풍요-Opulent Dream		○		조건부
6	13	남동구 간석동 173-7번지외 2필지	조각	봄의 기운		○		조건부
7	14	부평구 부평동 655번지 일원	조각	Cloud Tree		○		조건부
8	15	송도동 29-12	조각	기운생동		○		조건부
	16		조각	실크 스카프		○		조건부
9	17	청라동 157-11	조각	Geometrical Tree		○		조건부
	18		조각	소통의 공간			○	
	19		회화	시간의 초월			○	
	20		회화	시간의 흐름		○		조건부
10	21	서구 경서동 124-74	조각	물결치는 달빛		○		조건부
	22		조각	RENEW-문명과 자연		○		조건부
	23		조각	사색(Philosophize) -구름 문(Cloud Gate)		○		조건부
11	24	서구 불로동 블로지구 9블록 1,2로트	조각	상상의 숲-까치 호랑이		○		조건부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 오늘 참석인원은 총 12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11개소 24작품이며, 조각 13작품, 회화 11작품입니다. 이중 신규는 13작품, 재심의를 11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채점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 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 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외 나눠드린 사전심의서와 출품 및 심의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나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2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예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작품채점, 집계결과 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 선언 순입니다. 작품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질의, 위원별 채점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총 24작품을 심의하겠습니다. 순서는 신규 안건 먼저, 그리고 재심의 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작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숲속의

소리>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산동 1875-1(영종지구 C7-1-1)

1) <숲속의 소리>

사회자 1번부터 3번은 ... 작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작품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작품이 좋은 건지, 어떤지 그걸 보면서 또 가격이 합리적인 건지 뭐 그런... 작품의 가격보다는 또 가치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어, 저는 그 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평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 도서.
서 기 8페이지 인가요?

○○○ 이게 지금 상업 건물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 8층에 설치가 되는 세 작품인데 여기가 영화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3개의 작품이 그 영화관의 맞는 콘셉트의 작품인지를 조금 좀 이 공간의 장소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세 작품이 각각의 작품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제 이 공간이 그냥 거주 공간도 아니고 뭐, 좀 그냥 상업 공간도 아니고 이 특별한 어떤 영화관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특수성이 있는데 그 장소를 너무 해석을 하지 않고 작품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작품별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품, 심의할 작품 많으므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중)

위원장 채점을 마치셨으면 집계를 위해 채점표를 책상 우측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1. 중산동 1875-1(영종지구 C7-1-1)

2) <맑고 향기로운 여정>

3) <CAR>

위원장 예, 이어서 2번과 3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맑고 향기로운 여정>과 3번 <CAR>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2번과 3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개 다 제가 볼 때는 작품이 색채나 그다음에 기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나 또는 그런 정서적인 것에서 되게 작품은 수준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네.

위원장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에 잘 어울리나 그런 건 문제가 있지만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품별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과 3번을

같이 채점해 주세요. 채점을 마치고 마치셨으면 집계를 위해 채점표를 책상 우측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채점 중)

- 위원장 예, 채점을 마치셨으면 다음으로 4번.
- 이제 보면 평면 작품 같은 거 보면 기법에 있어가지고 믹스드 미디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 사회자 네.
- 근데 이 믹스드 미디어가 어떤 건가 혹시 알 수 있나요?
- 서 기 이거는 작가 대리인한테 여쭙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그런데 공공... 예, 공공장소에 믹스드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설치가 돼요. 그런데 보존성이나 이런 거에서 아직 저거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 서 기 예, 대리인 왔는지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 아, 예. 뭐가 붙은 건지
- 서 기 네, 네, 네.
- 그런... 아이들이 막 손대고 그렇게 하거든요.
- 서 기 네.
- 믹스드 미디어가 뭔지.
- 사회자 밖에 대리인 신청하신 분들의 대리인 분들이 필요하시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추가로, 혹시 궁금하시면 자세한 건 이제 대리인들을 통해서 질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 서 기 지금 대리인이 저기서 지금 작가한테 전화하거든요.
- 아, 예, 예.

서 기 그래서 받아 보고 저희가 대리인한테 여쭙볼게요.
○○○ 예.
서 기 4번 진행할까요?

2. 계양구 작전동 415

4)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위원장 아, 그리고 믹스드 미디어가 뭔지 일단 듣기 전에 4번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4번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여백을 잘 활용한 작품 같아요. 라인하고 얼굴에 어떤 그런 게 뺨뚫려 있어서 뒤에 있는 배경도 이렇게 잘 보이고 그래서 공감감이 좀 잘 적절해서 구상한 작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기 작품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각가인 ○○○ 선생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앞에 회화 평면 작품이 2m이긴 하지만 5,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비용 작품 이게 7천이랑 좀 가격 이렇게 문제가...
○○○ 저기,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정확히?
사회자 320에 150에 380, 380입니다.
○○○ 저거는 조각 작품으로 굉장히 싼 겁니다. 싸죠, 왜냐하면 회화로 엄청 보면 오래 나오고, 뒤에 보면 한 6,000만 원 넘는데 조각 작품은 7,500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저 정도 크기로는.
○○○ 그러니까요.
○○○ 왜냐하면 주물로 하면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재료비에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 많이 올랐어요, 재료비가.

○○○ 아니, 저 가격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 적죠. 적어요. 적죠.

○○○ 왜냐하면 재료비도 오르긴 했지만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 그렇죠.

○○○ 그래서 이게 거의 뭐 2배 정도 가격이, 3배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가격은 적정하게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작가의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대신 찾아보고 있었는데.

○○○ 저번 2차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조형물이 거의 억 넘었었는데 갑자기 조형 작품이 1,000만 원대가 나오니까 이게 또.

○○○ 알았어요.

○○○ 네, 저공개된 공지에, 개방된 공간에 볼 때, 위치상으로 볼 때는 더 좋은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이게 지금 투시도 시점이라고 해서 보시면 이쪽, 내부 쪽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게 앞뒤가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쪽은 앞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면도

○○○ 도서에 의하면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 아, 그래요?

○○○ 네, 네.

○○○ 그럼, 당장 뭐 정면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 보통 저쪽이 정면 투시도 아닌가요? 지금 여기

○○○ 여기, 여기, 여기.

○○○ 네, 네,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 그리고 이게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내역서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원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다 있어요, 내역서가요. 근데 혹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 원가에 대한 거는.
-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거를 작품을 작품성으로 봐야지 저거를 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 아, 그렇죠. 그, 그...
- 서류에 보시면
- 예.
- 미술 작품 설치 금액 사용 계획서가 있어요.
- 거기에 창작비가 20%로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제작비, 설치비, 대행수수료비 이렇게 짝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 그래서 작품을 단순히 이렇게 조각 작품을... 쉽게 얘기해서 근수로 달아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 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뭐, 그거를 뭐 원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 예, 압니다.
- 작품이 보는데 이제 예술품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여기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호당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저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 회화에서 호당을 쓰고 선생님처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각은 중단가 개념을 써요, 중단가. 그래서 그거는 부피죠. 부피 개념을 써서 우

리가 부피로 돼 있는 동그란 판을 펴요, 계산을 해서. 그거 다 건축사
님이니까 아시겠죠. 그걸 펴서 호당으로 가격을 똑같이 매깁니다. 그래
서 이렇게 아마 그런 거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 면적 당 해서 이제 저기 그, 그거 뭐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요율
대로 해서 이제 금액을 측정하는

○○○ 그렇죠, 예.

사회자 이게 한 건물의 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뭐 2개, 3개 작품이 있는 것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마다 이제 맞는 금액 이상으로 저희
한테 신청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건물 내에
총 산출을 해 보니까 7,200만 원 이상. 그렇기 때문에 7,300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산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 이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겁
니다.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작품별
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서 기 아까 그 3번, 믹스드 미디어 물어보셨 던 거

○○○ 네, 네, 네.

서 기 네, 대리인 들어왔습니다.

관계자 네, 안녕하세요? 네.

서 기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그 3번 작품을 한 번 잠깐 되돌려 보실래요?

○○○ 다 믹스 미디어 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자 아, 네. 3번 작가님 작품은요. 아크릴 하고 미디엄이 쓰여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아크릴 하고?

○○○ 예, 그게, 그게 어떤, 아크릴 미디엄... 어, 어, 페인팅이랑 어떤 재료가 믹스가 됐는지.

관계자 아, 네. 작가님께서 지금 혼합재료라고

○○○ 예.

○○○ 혼합재료는 어떤거를

관계자 네, 그러니까 그거 믹스해서 쓰셨다고 그렇게만 지금 얘기를 해 주... 그러니까 그

관계자 그냥 미디엄 하고 아크릴이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관계자 네, 네.

○○○ 그러니까 그 저는 그 혼합 재료가 무엇인가.

관계자 네, 네, 그게 잘못 표기 됐다고...

○○○ 공공미술에 적합한 재료가 들어갔나, 위험하지 않나 뭐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죠.

관계자 네.

○○○ 저기 혼합재료...

○○○ 그 저기 아크릴 미디엄이라는 건, 뭐, 물이나 뭐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요. 크게 제가 보기에선 위험한 거라기보다는. 저도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재료로 했는지. 큰 재료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 기 질문 다 하셨나요?

○○○ 네, 됐습니다.
서 기 네, 나가셔도 됩니다.
관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채점을 마치셨으면 집계를 위해 채점표를 책상 우측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3. 송도동 172-6

5) <Media-space 1>

6) <Media-space 2>

7) <Media-space 3>

위원장 다음으로 5번부터 10번까지는 한 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입니다. 5번부터 7번까지 세 작품을 한 번에 진행하고 이어서 8번부터 10번까지 세 작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부터 7번까지의 작품 <Media-space 1>, <Media-space 2>, <Media-space 3>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5번부터 10번까지의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영상 작품이니까 잠깐 좀 이렇게 한번 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품이니까 잠깐 불까요?

(시청각 자료 재생 중)

위원장 예, 또 다른 작품이 있죠?

서 기 네. 2번도 비슷한.

(시청각 자료 재생 중)

위원장 네, 또 다른 거.

서 기 네, 3번 보여드릴게요.

위원장 네.

(시청각 자료 재생 중)

위원장 예, 작품을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의 작품, 미술작품 심의이력에 보면 지금 18-1차가 18년도 1차라는 얘기인가요?

사회자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이 작품이 너무 똑같은데 이게 다 세 작품 **거예요? 이게 18-3차, 이것도 다 기존에 거의 똑같고.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18차-2 작품 18차-3의 작품도 똑같고. 이게 다 설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 예, 이걸 보니까 1차, 2차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들이 지금 또 심의가 이렇게 됐던 게, 심의가 또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거죠?

○○○ 근데 이게 떨어져서 다시 한 건가요?

서 기 아, 주소지가 다른 거 보니까

○○○ 신규로 들어왔어요. 신규로 들어온 거, 신규로.

- 이게 작품의 재질도
- 신규인데
- 오일 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작품을 똑같이 갖고나온 건지.
- 이거 전에 것도 영상이었나요? 작품이었나요? 전에 거.
- 지난번에 영상 아니었죠?
- 아니요, 이 작품을 제가 보니까 지금 세 작품 같이 보시면 여기 평면도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게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에 아니... 6페이지에 보면 이게 원화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중간 노란색 부분에 8... 6페이지요. 이게 빨간색 부분에 원화가 설치가 되고 이 노란색 부분에 영상이, 이 세 작품이 같이 플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 네, 근데 이런 원화가 이게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네요. 네. (웃음)
- 그 전에 원화고 이거는 영상 아납니까? 원화...
- 아니요. 이거 여기 빨간 작품에 원화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빨간 위치에. 이 원화가 설치가 되고 저기 이제 전광판에 이 작품의 3개를 같이 플레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 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세 작품이 다 성향이 다른, 두 개는 같지만 이 쥐불놀이라는 작품이 또 같이 영상이 상영이 되면 그것도 또 이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시간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임라인도 다르고, 시간도 러닝 타임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이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 위원장 그러면 저기 밖에 혹시 관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 네, 혹시
- 서 기 네.

○○○ 이게 이렇게 똑같은 작품을 똑같이 복사해서 설치를 해서 가능한 한가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심의할 때?

위원장 우리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봤을 때 조각에서는 절대 그러니까 그 허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근데 너무 똑같아서.

○○○ 그래서 그 미술 작품 뭐, 이렇게 어떤 예술성으로 봤을 때 창작이나 이런, 이런 게 없어지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제가 건축주면 많이 안 좋을 거 같아요. 예.

○○○ 창작이, 창작이 좀 이 구성돼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 뭐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지 작품인데 이게.

○○○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치된 건 영상이 아닌 것 인가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장 예, 지금 제가 관계자를 좀, 말씀을 듣고자 했으니까 그쪽에 한번 여쭙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 기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관계자 네.

○○○ 저희 작품이 지금

관계자 네.

○○○ 3개가 이번에 온 작품 <Media Space 1, 2, 3> 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관계자 아, 전에, 전에 다른 데에다가 한 거랑요.

○○○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심의를 받은 작품이에요.

관계자 아, 그게 다시 이렇게

○○○ 예, 그게 다시 여기다가 설치되는 건가

관계자 아,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저도 물어보고

○○○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18년도에 심의해서 설치된 작품이 그때도 그림과 그다음에 영상이 다시

관계자 아, 영상은 처음이에요.

○○○ 그러면 여기에 그 그림과 영상이 여기도 뭐, 요번 그 그림과 영상이 같이 지금

관계자 네, 같이 들어갑니다. 네, 네.

○○○ 그 부분이 그랬는데 18년도에 심의 했던 작품을, 회화였던 작품을

관계자 아, 그 부분만 그러면 제가 다시 안내를 제가 그림 다시

서 기 통화하고 오시겠습니까?

관계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서 기 네.

○○○ 그러면 뭐 저작권이나 표절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 그런 건 없어요?

○○○ 참고로 우리가 그 유명한 조각가들의 작품은 보통 그러니까 8번. 8번까지 이렇게 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레로 로댕이 칼레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곳곳에 있는데 도시에 그게 8번, 8번 파운데이션해서 8번까지를 진품으로 결정합니다, 조각은. 그리고 판화 선생님들도 다 계시지만 판화의 경우에도 그런데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거라 그런 정도인데. 원화는 제가 알기로는 복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화하고 조각은 복제가 가능해요. 왜? 그러니까 틀을 찍어내는 거니까. 근데 손으로 그리는 거는 음, 글썬요. 저도 뭐 설명을...

○○○ 저희는 뭐 작가의 어떤 독창성이나 작가의 화풍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저거는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자기 복제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복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 복제의 수준은 판화나 그다음에 조각 분야에서는 8번, 판화는 뭐 수백 번까지 찍고, 사진도 그러니까. 그런데 유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자 네, 네, 네.

○○○ 똑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 그러니까 희한하네요.

관계자 18년도에 그 심의 받았던 작품은 크기가 다르고요. 또 그 작품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설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어차피 또 다른 작품이기도 하고요.

○○○ 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럼 다시

관계자 네, 네. 18년도에 심의 받았던 작품은 어차피 다른 작품이기도 하고 이미지는 비슷하지만 또 그 작품은 설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 이 세 작품 다...

관계자 부도가 났다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설치를 못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지금 심의이력보다는 설치된 사진 그러니까 심의 이력도 있기는 하지만 설치된 사진을 만약에 여기 돼 있으면 심의 했던 사진보다 설치된 사진을 어차피 그 웹사이트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보기가. 근데 심의로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설치를 못할 수도 있어서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작가가 이걸 똑같은 작품을 냈다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작품을 팔았는데, 거기에 팔았는데 이걸 똑같이 또 자기가 그대로 낸다라는 거는 말이 좀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검토해 볼 수는 있나요.

○○○ 설치를 안 했으면 이게 또 심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설치가 됐으면

○○○ 그렇죠? 그게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부결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결

과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공공미술 포털에 검색을 한 번 해보시죠.

○○○ 근데 안 나오는 게 많아요.

○○○ 아, 한 가지 의견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LED판을 보시면 지금 분할해 가지고 영상이 그냥 타, 다른 영상들이 들어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몰입도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영상 1, 2 같은 경우에 카메라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작품 3 같은 경우에는, 3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 카메라 앵글이 계속 뒤집혀요. 그러다 보면 몰입도도 떨어져서 제 생각에는 그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작품을 그냥 계속 틀어놓는다고 했을, 루핑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걸 좀 떨어뜨려 가지고 분할시키거나 아니면 통으로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플레이 되는 식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영상 스케일에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이 있습니다.

○○○ 예, 또 뭐... 어떤 이미지 그 자기 표절은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또 전문, 그쪽으로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면 또 의견 말씀해 주시죠.

○○○ 지금 이렇게 예술가, 아티스트들이 비디오 아트를 하는 게 굉장히 꽤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테크니션들이 엄청난 그런 활약을 해서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인 비디오 아트들은 전부 다 테크니션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비디오 아트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챗GPT라고 새로운 AI가 나왔는데 그런 말로만 해도 굉장한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굳이 그림도 저렇게 잘 했는데 왜 또, 가격도 먼저 거랑 비슷한데 그런 거를 뭐하러 집어 넣어가지고, 힘들게. 그냥 그림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 여기가 AI센터 아닌가요? 그런 쪽이 아닌가요, 약간?
- 뭐 그렇게... 그렇죠.
- 그래서 저는 그 회화보다는 저 그 AI센터에 맞게, 심사라고 하면 점수를 매길 수 있겠지만 그 AI센터에 맞는 그런 미디어라고 생각해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심의라는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전에 다른 데서도 영상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작이 들어갔는지를 좀 알고 싶기도 해요.
- 아니, 이제 뭐 작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굳이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넣었다는 게.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이 테크니션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들거든요, 혼자 발현을 해내기가. 그래서 보면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저도 아티스트니까. 저런 거 할 때 또 이렇게 유명한 비디오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하고, 테크니션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아예 논란 억제를 위해서 이렇게 단 채널 비디오 형식으로 쓰든가 하는데 저런 거를 보면 이렇게 비디오를 조금 하는 작가로서 이렇게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크니션으로서.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지 좀 어설피다고 그럴까. 아예 그냥 화가니까 그림으로만 충분히 해도 충분할 텐데. 취지는 다 알죠. 아, 이런 건물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건 다 알겠는데 굳이 그런 걸 넣어서.
-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예요. 저도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고 접목을 좀 시킬 때도 있기는 하는데 원화는... 모르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가면서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업적인 느낌도 들고. 작품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그게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시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평면을 입체화해서 NFT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이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요즘 추세이기도 하고

한데 평면을. 근데 그런 입체도 영상으로 많이 만들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예술적으로 이거를 진짜 고급된 테크니션과 같이 좀 잘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좋은 시도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작가로서 콘텐츠가 너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시도는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작가들은 항상 고민하잖아요. 작업실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중간은 거의 생략이 돼요. 생략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놓았을 때에, 작가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하잖아요. 화가들도 그렇고, 조각가들도 그렇고, 다른 아티스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영상이 발현이 될 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작가가. 왜냐하면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거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초보 수준이거든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왜 작가가 굳이 저런 걸 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냐, 이 얘기죠.

위원장 예, 충분히 토론은 된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 두어 작품 조그맣게 해서 여기 인천시청 지하철역에 있지 않나요, 저거요.

위원장 아, 있습니까?

○○○ 비슷하게, 똑같은 게 있다고.

○○○ LED로 막, LED로 켜져 있더라고요.

○○○ 근데 그 작가 같아요.

위원장 예. 자 위원님들께서 작품별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서 기 공공미술 포털에 검색 하셨는데, 이게 이미,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 아

서 기 근데 어쨌든 공공에서 포털에 올려놨다는 거는 사용승인이 났다는 의
미거든요.

위원장 음, 예.

3. 송도동 172-6

8) <The other land 22-9>

9) <명경지수-바라봄과 깨달음>

10) <달려다가>

위원장 예, 채점이 끝나셨으면 으면 다음으로 8번 <The other land 22-9>, 9번
<명경지수-바라봄과 깨달음>, 10번 <달려가다>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작품, <The other land 22-9>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의견 없습니까?

○○○ 저 <The other land 22-9> 그거는 저기, 그거는 그거, 그전에 거 보니
까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있네요.

○○○ 네, 어디에 있습니까?

○○○ <달려가다>랑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 그 8번, 5쪽에 8번에 5번. <The other land 22-1> 이 있는데 이거랑은 조금 틀리네요.

○○○ 콘셉트가 있는 건지.

○○○ 아마 그…

○○○ 저런 거는 작가의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 예, 예. 그러니까 연…

○○○ 시그니처니까

○○○ 연작으로

○○○ 연작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

○○○ 연작으로 보면 돼요.

○○○ 예.

○○○ 시리즈죠, 시리즈.

○○○ 예.

○○○ 방향만 바뀌었네요.

○○○ 예.

○○○ 아니, 배경도 바꿨고요. 좀 다른 또 의미가 됐습니다, 이게.

○○○ 같은 작가인 것 같아요.

○○○ 예.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그 이게 심의 의결이잖아요. 이 작품들이 당선이 되는 것…

○○○ 심의 돼서 당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 되게 색깔이, 색깔이 있는 부분인데, 저도.

위원장 9번 <명경지수-바라봄과 깨달음>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

죠.

○○○ 여기에 나온 작품들은 대부분 건축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합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원해서 아마 작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고. 지금 명경지수 이 느낌은 되게 여백을 잘 살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명상적인 느낌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새로운 공기가 들어간다는가, 이런 느낌.

위원장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0번 <달려가다>. ○○○ 위원, 저것 좀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 나름대로 작품성이 있고, 시리즈도 괜찮고 또 그 관객들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가 쉬우면서 뭔가 휴게실에 났을 때 뭔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자연적인 느낌도 들고 재밌습니다. 네, 그렇네요.

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들. 그 세 작품 다 공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작품별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4. 청라동 152-5,6

11) <Pink panda>

위원장 채점이 끝나셨으면 다음으로 11번 <Pink panda>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1번 작품 <Pink panda>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의 구조나, 짜임새나 이런 것들이 뭐 또 포토존 느낌도 연출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좀 접근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구체적으로 작품이 뭐, 이거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환경도가. 그런데 가격 대비 좀 스케일이 조금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훌륭한 그런 재료 기법에 있어서 조금 식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빼고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 저게 굉장히 360mm인데 무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어떤 구조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 위원님.

○○○ 저게 지금 그 바닥에, 기초판이 있는데요.

○○○ 네.

○○○ 거기 지금 콘크리트 넣은 거 하고 철근, 배근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예, 일단 채점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만약에 점수가 되면 ○○○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의견을 조건으로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해 주시죠.

(채점 중)

5.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RC1

12) <풍요-Opulent Dream>

위원장 채점 마쳤으면 다음으로 12번 <풍요-Opulent Dream>에 대해 사회자에게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2번 <풍요-Opulent Dream>은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거는 이제 작품을 들어가지고 현재 그 봉 높이가 바닥에서 1.1m
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닐 때도 조금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
서 가지고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높이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
니다. 이상입니다.
- 어디가 1.5…
- 봉을 더 크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어디가, 어디가 1.5m라고.
- 왼쪽에 보이는 게 1.1m 아니에요?
- 예, 예, 예.
- 아니요, 저거는…
- 예, 예, 3개.
- 저거는 3,400이라고 돼 있는데.
- 아, 이쪽에 낮은 거요.
- 이거 낮은… 아, 1,100 낮은 거요?
- 예, 예. 어떤 걸…
- 아, 저 주황색 구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 예, 예, 예.
- 지금 그 여기 조감도를 보시면 저도 이거를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조감도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건
지 아니면 어… 만약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좀 되게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을 조정으로 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못 들
어가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하
면…
- 근데 이제 저 부분은 어른이라 보다, 이제 애들이기 때문에 어떤 난간

대를 만들지 않는 한 애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는 거죠.

○○○ 그렇죠, 저거 뭐 높이는 건 문제 안 되니까.

○○○ 그렇죠, 근데... 높이는 거는 문제는 안 되는데 높였을 때 어떤 예술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작가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경력을 보면 꽤 많은 작품을 설치할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높이는 걸 높이면 이게 1,800 정도가 됩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왜냐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 문제가 안 돼요, 그럼요.

○○○ 왔다갔다하는 것도.

○○○ 예, 그 조형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작가한테 그 조건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작은 낮은 것만 좀 올리면 조화롭지 않을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아, 저는 이 도면을 보니까 측면이나 이런 밀도가 지금 비례가 딱 좋거든요, 저는. 작가가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조화롭게 했던 높이인데 보통 우리가 그네를 타거나 이런 애들 놀이 시설을 할 때 다 매달려도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이게 스테인리스고 어느 정도 두께를 유지하면 나는 이게 오히려 아이들이 매달렸으면 좋겠거든요. 좀 갖고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안전하기만 하면 저는 지금 이 높이와 그 아이들이나 이렇게 애들이 접근해서 기대고, 매달리고 나는 그 정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이 저는 경쾌하고 재미있기는 한데요.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 예, 공공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촉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가가 조형성의 문제가 있어서 또 우리 의견에 난색을 표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아니면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제 여기 보면...
- 근데 일부러 1,100으로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올라가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견 것 같거든요.
- 무슨 예각이나 이런 게 없고 다 등실등실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그럴 거는
- 예, 이거는 떨어져도 안 다칠 것 같은데요, 여기. (웃음)
- 구조 안전 확인서가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매달렸을 때 하는 걸 고려한 건지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백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 그걸 보고 건축사님이 잘 모르시겠다는 건가요.
- 지금 여기서는 그 백 데이터가 없습니다.
- 아, 예.
- 없어가지고 매달릴 수가 없는 그런 저기를.
-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뭐, 조건부로 그러니까 낮은 조경을 하면 거기에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면.
- 그거 또 시각적으로 은폐가 되기 때문에
- 그렇죠.
- 예, 그 조형물의 의미가 좀 반감될 수가 있죠.
- 아니, 낮은 꽃이나 이렇게 낮은 조경을 해놓으면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것 좀 보완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봤을 때 뭐, 구조 검토를 받아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두께나 이런 부분에서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구조 검토가 있으니까 뭐

○○○ 구조 확인 범위가요. 자중하고 풍하중. 그런데요, 죄송한데 끊었는데요.

○○○ 두께라든가 이런 거...

○○○ 근데 두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짐이라고 그러죠, 초등학교에 가면 짐이나 철봉 같은 경우 그 두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각가들이 쓰는 스테인리스 두께가 있어요. 얇으면 찌그러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3t, 4t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큼니다, 사실은.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아, 네. 역시 건축하시는 선생님이라. 두께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 아까 저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매달릴 수 있냐고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그렇죠. 두께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가야지 생각보다 할 게...

○○○ 매달려도 괜찮다라는 걸요.

○○○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 지금 저게, 저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게요. 지금 구경하고 그다음에 밑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게 애들이 이제 현재 애들이 그 손아귀로 들어가기로는 구경이 좀 큼니다. 그리고 저게 미끄러워가지고 애들이 매달릴 수는 없어요.

○○○ 그럼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 예, 구조적으로 튼튼한 거는 튼튼한데 애들이 저절로 올라가서 놀이로 매달리고 하는 거는 저게 할 수가 없습니다.

○○○ 근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조각 작

품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아주... 속담 중에 접시 물에
코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각 작품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아
까 위원장님께서 이제 예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다칠
염려나 이런 건 없고 이제 단지, 이제 높이 문제만 잘 조절 하면,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은.

○○○ 예, ○○○ 위원님께서서는 안전 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점도 유념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의견이 나온 것 같으니깐요. 예,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 작품의 높이를 바꾸면 작가의 의도가 달라지는 거고. 가장 자기가 아
름답다고 해서 낸 거를.

○○○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저것만 높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비율이
있으니깐

○○○ 그렇죠.

○○○ 같이 조금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6. 남동구 간석동 173-7번지의 2필지

13) <봄의 기운>

위원장 다음으로 13번 <봄의 기운>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사회자 예, 13번 <봄의 기운>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이 이게 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 뭐, 또 기존에 있는 작품이 아닌 것 같고. 창의적인 느낌도 좋고요.

○○○ 지금 여기 쓰여진 재료가 알루미늄이라 지금 이 동글동글하게 들어간 이 부분이 스테인리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접합을 어떻게 하는지를 도면에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합하는지, 떨어지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접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 대기 하시는 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 예, 13번.

○○○ 왜냐하면 저게 알루미늄 하고 스테인 하고 접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서 기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 15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페이지.

서 기 15페이지? 네. 여기요?

○○○ 네. 예, 15페이지에 보시면 주물이 알루미늄 캐스팅으로 돼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 구로 이렇게 좀 동그라미가 이렇게 쪽 붙어 있는데 그 접합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접합을 하려고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관계자 아, 이게 그거는 용접을 하는 데는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작은 데는 **라는게 있어요.

○○○ 예?

관계자 특수 접합제 **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붙일까 하고 있어요.

○○○ 아, 그게 ** 라는 게 어떤 건지

관계자 아, 그게 이제 석회하고 석재를 붙일 때 붙이는 건데 되게 강력한 접

착제예요.

○○○ 근데 그 알루미늄이랑 스테인리스 스틸이랑

관계자 네, 그것도 잘 붙어요.

○○○ 접합할 때 그거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자 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에폭시로 할까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하
거든요.

○○○ 혹시 작가분이신가요?

관계자 네.

○○○ 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외부에다 설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계자 네, 네.

○○○ 뭐, 문제는 없었나요?

관계자 네, 네.

○○○ 네.

관계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돌도 그렇게 많이 붙이고 하고 있어요, 작은 곳
만. 큰 면적은 앵커를 해야 되는데 작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하
고 있어요.

○○○ 그다음에 이제 우레탄 도장이 들어가는 거죠.

관계자 네, 네.

○○○ 저거는 용접으로 해도 돼요.

관계자 네, 그래서 용접... 예, 예.

○○○ 요즘에 용접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다른
재료와 재료가 다른 거는 용접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용접이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작은 건
못하지만

관계자 네, 안 그래도 고민하는데

○○○ 그런 거, ** 붙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관계자 저 끝에 부분은 작은 거, 반으로 잘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접으로 하는데 혹시 용접 기계가 안 들어간다고든가 했을 경우는 그럴까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다른 재료를 접합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관계자 네.

○○○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관계자 네, 네.

서 기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 네.

관계자 감사합니다.

서 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으시면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7. 부평구 부평동 655번지 일원

14) <Cloud Tree>

위원장 자, 14번부터는 재심의 작품들입니다. 14번 <Cloud Tree>에 대해 사회 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4번 <Cloud Tree>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 이게 지금 전에 있던 작품이랑 지금 이게 수정을 한 작품인데, 작품 설명을 보면 이게 연리지에서 구름이 내려

와 살포시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작품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전에 작품은 따로 어쨌든 연리지라는 의미가 나무가, 다른 나무가 하나로 붙어가지고 서로 붙는 형상이 되는 나무인데 지금 첫 번째는 그런 이미지가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수정한 이미지는 그 설명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형상으로 연리지라는 그런 주제에 맞지는 않게 그렇게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작가가 제대로 예술성을 가지고 한 작품인지 그게 되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지금 심의이력을 보면 22년 12차가 이게 설치된 작품은 아닌 거죠?

서 기 22년 12차가 이 작품입니다.

○○○ 그렇죠. 여기에서 이번에...

서 기 이 작품을 바꾼 거예요.

○○○ 부결이 돼서 재심의를 받아서 이거를 받은 거죠?

서 기 예, 맞습니다

○○○ 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누가 이 이미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에 설치돼 있는 작품인데 이게 너무 좀 유사해서 이게 구름, 구름의 나무라는 그런 부분이 너무 유사해서, 이 사진을 하나를 좀 너무 유사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같이 첨부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나무 형태에도 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나. 조금 아무튼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아니, 저 중국에 있는 작품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성격이.

○○○ 그런데 이 때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마감이 똑같아요. 거기에다 꽃만 붙인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 줄기는 뭐 다른 형태로 나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다른 재료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된 그 기법은 너무 이상해서. 어쨌든 네, 그거는 뭐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 예, 감사합니다. 다른 또 의견? 예. ○○○ 위원님, 뭐 부연 말씀하실 거, 해주시죠.

○○○ 아니, 기법이 같다고... 그 비슷한 작가들의 작품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선의 점, 선, 면 이렇게 입체로 나가는 거는. 근데 저도 제 작품이 선으로 해서 연결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중국 작품하고, 이 작품은 좀 별개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저 중국 작품이라는 게 지금 중국 작가가, 중국에 설치한 작품인가요?

○○○ 여기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 아, 예.

○○○ 판매를 하는 거죠. 중국 사이트를 제가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 사이트를 보니까 그거 뭐, 한 식에, 1식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작가 이름이 없는 거 보면.

○○○ 재료나 기법 같은 거, 둥근 나뭇잎을 표현할 때, 재료나 기법 같은 게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 어, 지금 잘 안 나와요. 해상도가 잘 안 나왔는데 좀 이렇게 크게 보면 똑같... 예, 똑같이 그 이렇게 라인을 따서 그 중간중간에 저렇게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조각 기법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조각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저작권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면 저작권이라는 게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예술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순수에서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체는 저작권

이 없어요. 왜? 사람 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똑같이 로딩 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유상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저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각가들이 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착시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각자 여기 계시는 심위위원 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작년 12월에 심사한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재심의 된 것 같은데 저는 조명이, 첫 번째 변경 전에 훨씬 안정적으로 됐는데 조명이 전에 했을 때의 조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명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비치는 구름의, 안에서 빛이 발사하는 그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비치는 게 아니라 밤, 야간 조명에서.

○○○ 저 작품을 그 3D맥스라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법 적으로 하잖아요. 마야나 뭐, 이런 걸로. 근데 3D맥스 상에서 UVW 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저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 맵핑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하다 보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그런 걸 좀 저도 이렇게 다룰 줄 아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거 일일이 다 그릴 수는 없거든요, 저걸.

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8. 송도동 29-12

15) <기운생동>

16) <실크 스카프>

위원장 자, 다음으로 15번과 16번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물이
고, 네. 15번 <기운생동>과 16번 <실크 스카프>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5번과 16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일단 <기운생동>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생
동>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 근데 이게 15번이 이게 다른 데 다시 올라온 거죠?

서 기 이게 지금 네 번째인데 21년 1월에 했었고, 22년 10월에 했었고요. 그
리고 작년 10월에 나왔던 겁니다.

○○○ 아, 한 번 더 했구나.

○○○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올라온 거예요?

서 기 21년 1차예요? 심의도서 앞에 사유가 이렇게 있는데요. 과한 조명은
꽤 부담스러움. 불안한 조형 밑에 시각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게 밀도
가 좀 떨어지고 차가운 분위기 연출. 이런 식으로 심의도서 첫 페이지
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형상 불안, 예술성 부적합. 과한 빛 반사. 이
렇게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 근데 두 번째 제가 그때 여기에 참여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서 기 이제 지금 이 작품을 이렇게 바꿔서 하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짜리를

○○○ 예.

서 기 예, 이렇게 8개짜리로 바꾸신 거죠. 이것을 이렇게. 부결, 부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이게 어떻게…

○○○ 전 작품이 훨씬 낫네.

○○○ 아니, 이게 훨씬, 지금 게 훨씬

○○○ 아니요, 전 작품이 오히려 개방감이 있고

○○○ 그래요?

○○○ 오히려 이 작품보다는.

○○○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 긴장감이 있죠, 긴장감이.

○○○ 네, 전 작품이 이 작품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서 기 그 당시에 이제 평을, 이런 평으로 해주셔 가지고 부결이 된 거 였어요.

○○○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나게 이렇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 아니, 근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안전 쪽으로만 보는데 그때는 뭐, 저야 뭐 작품을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닌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 불안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 기운이 생동하는.

○○○ 불안하지는

○○○ 네, 그렇긴 하네요.

○○○ 네, 네.

○○○ 그러니까 아, 그러게요. 너무, 너무 그전에 그런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작가분이.

- 아, 지금 미니멀 조각의 어떤 특징 같은 거를 먼저는 잘 구현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그 복잡한 요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 뭐, 보는 입장들이 다 다르겠죠?
- 반사 되는 것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 움직이는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같이 투사될 때 그 느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게 작가의 시그니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제…
- 이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그때는 또 빗공해 때문에 휘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라고 그때 했어요. 그 이후로 휘도에 대한 거는 어떤 언급도 없고, 제가 봤을 때 표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 저는 뭐 작품성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저게 지금 표면을 3차 연마까지 갔어요. 그러면 전에 보다 더 지금 연마를 해가지고 더 지금 광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다가 이게 지금 보면 상부에 하나가 있던 게, 지금 상부에 한 4개가 생기면서 빛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지금 퍼지는 거죠. 저는 그것만 봐서는 이 작품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전에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됐냐고 이제 여쭙본 게, 그래서 이제 여쭙본 겁니다.
- ○○○ 작품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물방울 하나가. 근데
- 네, 완전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반사되고 이런 느낌들이 더 많은
- 어떤 그 힘이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지는 저쪽 같은 경우는 어떤 상승 지향이라면 이걸 이제 사방을 방사형으로 어떤 힘을 분산시키는, 분산과 집중 효과 같은 거를 아마 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토론하고 작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말씀해 주시죠. 실크 스카프.
- 작가를 변경한 거죠?

사회자 네, 이거는 먼저 일단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작가를 변경해서 새로
 심의 올린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 그 재질이 금속 재질인 건가요?

○○○ 예. 알루미늄, 폴리카롬, 우레탄 도장.

○○○ 아, 조금 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예각 같은 거는 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아
 닌 것 같은데요. 그걸 좀 확대해서 보면 거기... 그 작품을 한 번 확대
 해 주십시오.

○○○ 높이 때문에 뭐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다시 한 번 저기...

○○○ 예, 아니면 뭐 가운데 조그마한 건, 튀어나온 건

위원장 ○○○ 위원님이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저 작품의 안전성 문제를. 예,
 예. 안전...

○○○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초판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거 빼놓고 지
 상으로 노출되는 거는 높이나 이런 거 봐서 가운데 부분도 그렇고 전
 혀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게 이제 공공 어떤 미술이잖아요. 공공미술의 어떤 그 딜레마가 작
 품 쪽에 접근하는 그 공공일 수도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어떤 아이들
 도 와서 같이 어울리고, 놀고 그런 경계에서 항상 어려운 문제가 나오
 는데 저런 경우는 이 밤에 보니까 가기가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아
 까 이 밤에

○○○ 밤에요?

○○○ 네. 그래서 이번 거 지금. 이게 너무 작품 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 예.

○○○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작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저 나름대로 어떤 예술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작품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네, 채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9. 청라동 157-11

17) <Geometrical Tree>

18) <소통의 공간>

위원장 다음 작품. 다음 17번부터 20번까지는 한 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입니다. 심의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17번과 18번을 먼저 그리고 19번과 20번을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번 <Geometrical Tree>, 18번 <소통의 공간>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7번부터 20번까지의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일단 <Geometrical Tree>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각가가 색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색을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넘게 연구를 했는데, 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색을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사람을 사람답게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저렇게 대략적인 형태에다가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작품은 보면 볼수록 좀 아쉽다는 느낌이 조각가로서는 조금 많이 든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 빈약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 그렇죠, 색도 그렇고.
- 저 도장을 뭐로 쓰는 겁니까? 어차피 계속 햇빛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변색이 되지 않습니까?
-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저는 전통적인 우레탄 중에서도 그냥 우레탄이고 자동차의 칠하는 도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에 칠한, 도료로 칠한 작품은 제가 귀국했을 때 2,000년 초반에 해놓은 작품이 있는데, 칠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가끔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래서 저것도 색을 잘 고르면 그리고 잘 칠하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빨간색, 레드 같은 경우에는 국산이 2~3만 원, 4~5만 원 할 때 외국산 한 10만 원 이상 이렇게 3~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칠하면 변하지 않아요, 야외 자외선에 노출이 돼도. 그래서 독일 연구진들하고 한 번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건 반영구적이다, 우리 색은.”
-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재료를 안 쓴다라는 거죠.
- 안 쓰죠.
- 그렇죠. 그러니까
-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국산 우레탄을 저렇게 쓰면 저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색이 그냥 바래버리는 거죠. 조각가들의 색 쓰는 거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레탄 종류도 잘 골라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심의도서를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저것까지 그냥 우레탄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좀
- 전문가 입장에서 저 작품은 어떤 도장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심의...

- 알죠, 저거 우레탄이에요.
- 아니요. 그 자기가 뭐 외제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아, 그러니까 외제라고 안 쓰여 있잖아요.
- 그러니까 국산이죠. 왜냐하면 저는 꼭 독일산 도료라고 쓰거든요.
- 예, 쓸 때 독일산 도료. 뭐, 이렇게.
- 근데 그거를 체크해 볼 사람이 없잖아요. 준공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재료, 페인트를 뭘 썼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 아, 방법은 없죠.
- 예, 그러니까.
- 근데 그 작가의 양심에 맡기게 되는 건데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음, 그렇죠.
- 근데 작가적인 어떤 마인드로는 그렇게 좋은 재료를 써서 진짜 10년이 고, 20년이고 계속 이게 유지가 되면
- 그래서 저거는 뭐 2억 4,000정도 작품 값을 받으려면 충분히 좋은 도료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안타깝네요.
- 위원장** 네, 그럼 다음 작품. 이 작품은 이제 이 정도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소통의 공간>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일단 안전 쪽에서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느낌이 작품이라기보다 어떤 건축물을 차곡차곡 쌓은 느낌인데 작품을 보면서 이게 안정감이 도는 게 아니고 뭔가 불안한,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꼭 이런 사람 목을 집어넣고 싶은 그

런 심리가... 죄송합니다. 지금 저 공간 자체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제일 밑에서 오른쪽, 왼쪽 보면 거의 어린애들 목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저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작품을 볼 때마다 꼭 주판알이 생각이 나요.

○○○ 그걸 크기를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거나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높이이고, 공간인지, 내부 공간이 그런지 한번 봐주시고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저 작품 아이들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 어른들도. 저는 이제 이 주무부처나 지자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냥 안전사고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죠.

○○○ 저게 지금 또 색깔이 화려한데요. 저 색상에 대해서 저게 이제 보증이나 하자에 대해서 그거를 나중에 관리주체는 이제 건물주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저렇게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이제 빛이 바라거나 작품에 대한 어떤 의사가 손상이 됐을 때 그 보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하네요.

○○○ 그러니까 그게 저게 일단 인천시의 심의를 받지만

○○○ 네.

○○○ 저게 개인 재산이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실례로 어떤 건물에 사용하는데 그 건물이 없어지면 그 작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작품까지 헐어버려요, 작품까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2년 지나고 나면 작가하고 상관없어도 그냥 개인이... 나는 분명히 우레탄을 칠해놨는데 그다음에 가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 작품 앞에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시내니

까. 그런데 일반 페인트칠 하는 분이 오셔서 칠해놓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작가로서 그런 게 되게... 하, 뭐라고 할까, 어떨까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이 자기 거니까 바뀌었겠죠. 주체가 바뀌었는데 작품까지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이다, 잘 한 거다 얘기를 떠나서 일단은 주체가 개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개인, 그 주인이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작품은 되게 어떻게 보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 지금 이제 건물주가 이제 지불을 하고 이제 한 거잖아요.

○○○ 그렇죠.

사회자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심사는 이제 그 건축주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거,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나 뭐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그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작가 분들과하고 연락을 해서 조금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떨 때 보면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수리해서 부분 보수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혹시 시 관리 규정에, 관리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있나 좀 궁금하네요.

사회자

별도의 관리 규정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관리는 군, 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있느냐, 없느냐 관리가 잘 돼 있느냐, 그 부분이고. 나머지 관리 주체는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라든가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예,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

그런데 저게 공공재라면 시군구에서 해야 할 텐데 이제 저게 사유재산

이거든요. 지극히 사유재산이라서 이렇게,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진짜 저한테 있었거든요.

○○○ 근데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 그렇죠. 근데 이게 작가의 머리에서 나와서 공공성 때문에 공공미술 작품을 심의를 하는데 이게 심의를 딱 끝내는 순간 그리고 그게 딱 자리에 앉히는 순간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조금 흐려진다고 할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 네. 건축도 이제 기존에 이제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요. 요즘에 최근 들어와서 이제 유지관리의 개념이 많이 생겼습니다.

○○○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새롭게 사후관리단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단체에서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런 논리죠. ‘이거는 개인 재산이다.’ 그렇게 있는데

○○○ 제가 인천에서 작품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걸 옮겨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 그 인천공항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대요. 시에 허락을 받고 옮겨야 된대요. 그게 왜냐하면 다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그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 아, 그거는 관이라서 그래요. 인천공항공사로...

사회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 아, 아니죠.

사회자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 네, 네, 네.

사회자 그 설치하고, 이전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위치라든가, 주변과의 조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그 이전 신청도 마찬가지로 저희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게 그 의미는 어쨌든 등록이 시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축주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술 작품을. 그렇죠?

사회자 예.

위원장 자, 채점해 주시죠.

(채점 중)

9. 청라동 157-11

19) <시간의 초월>

20) <시간의 흐름>

위원장 예. 이어서 19번 <시간의 초월>과 20번 <시간의 흐름>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9번 <시간의 초월>, 20번 <시간의 흐름>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간의 초월>에 대해서, 예.

○○○ 저거 보면 자꾸 철수세미 같은 게 생각나서. 작품이 저... 어디에다 그 포커스를 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 저 오브제로 메탈 섬유로 쓴 것 같은데요. 오브제로 쓴 거죠? ○○○ 위원님.

○○○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첫 번… 전에 작품 보다는 훨씬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다만, 이 저도 안 써본 재료긴 하지만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취약한 것 같아서 뭐, 아크릴 액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먼지를 좀 차단할 수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의 작품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 네.

○○○ 근데 가격 면에서 두 작품들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 예, 저도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지금 경력을 보면, 저도 그래서 경력을 한번 봤어요. 근데 개인전이 2회더라고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라고는 하기는 했는데 이 작품 가격이 이게 사이즈도 되게 작더라고요, 보니까.

○○○ 예, 그래서.

○○○ 저게 100호 인가요?

○○○ 그게 개인전 2회 정도 되는데

○○○ 100호도 안 되겠죠.

○○○ 100호가 안 되는 거예요.

○○○ 예, 안 돼요.

○○○ 안되는 거를 8,000만이에요? 네. 그런 게 맞는 건지 잘, 예.

○○○ 선생님, 저게 100호가 돼요?

○○○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제가 알기로는 회화는 보통 이렇게 나올 때 100호는 4,000, 200호 8,000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렇게 비싸지는… 작가마다 다르죠.

○○○ 달라요? 네, 근데 아까 ○○○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전…

○○○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그 전문가가 아니지만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이즈도, 사이즈도 그렇고. 전에 아까 심사했던 작품에 비해서
○○○ 음, 그렇죠. 약간 좀
○○○ 수준에 비해서, 작품 수준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조금 과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작품에 대해서 또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해 주시죠.

○○○ 이것도 가격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저렇게 있어서.
○○○ 같은 작가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경력을 보면 같이 이렇게
○○○ 아, 같은 작가인데 이렇게 스타일이… 예.
○○○ 그러게요.

사회자 같은 작가는 아닙니다.
○○○ 아닌가요?
○○○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 아, 경력이 비슷해가지고.
○○○ 맞춤 제작을 했네요.
○○○ 같은 작가가 이렇게 틀린 작품을 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심의를 받으
려고 내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내겠죠.

○○○ 주제하고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점이 약간 어수
선한 느낌이 좀 더 들고 아까와 같은 느낌인데 눈을 어디에 뒤편
지. 물론 시각적인 다양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집중하는 힘과
그라데이션 이런 것들이 조금 회화적인 느낌에 빈약하다라고 할까요.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채점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채점 중)

10. 서구 경서동 124-74

21) <물결치는 달빛(The Waving Moonlight)>

22) <RENEW-문명과 자연>

위원장 예, 다음으로 21번부터 23번까지는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한 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입니다. 심의는 21번과 22번을 먼저 그리고 이어서 23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번 <물결치는 달빛(The Waving Moonlight)>, 22번 <RENEW-문명과 자연>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1번부터 23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물결치는 달빛(The Waving Moonlight)>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각의 기법 중에서는 웰딩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포징이 있고 하는데 포징이 되게 어렵거든요. 작품을 붙여놓고 이렇게 두들긴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게 공력이 들어갔다고 보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위원장 또 다른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과 연결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

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RENEW-문명과 자연> 대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태적인 면에서는 되게 모던한데 거기에 ** 해서 느낌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잘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예. ○○○ 위원님.

○○○ 농경과 자연이라고 해서 저 사슴을 넣은 것 같은데 이 작가가 계속 해 온 스타일을 알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작품이 뒤, 가격이 과해서 그랬는데 사슴을 넣지 않아도, 넣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작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 지금 ○○○ 선생님 말씀대로 사슴을, 사슴 빼고 저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을 뻔 했는데 가격 때문에 진짜로 그런 건지. 작품 자체는 근데 조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나무랄 때 없는 작품입니다.

○○○ 저 사슴은 아마 어린이들이 올라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 아, 그러면 좋죠.

(일동 웃음)

○○○ 근데 요즘 하도 엄마들이 작품 올라타지 말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 또 다른 말씀,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 위원님.

○○○ 네,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 예, 그럼 채점... 네, 네.

○○○ 지금 그 수직으로 인한 저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네.

○○○ 근데 자세히 보니까 틈새가 완전히 있는 게 아니고 하부 쪽으로 가면 틈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겨울에 이제 저기가 물이 있어가지고 얼면 계속 이렇게 팽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원래 한 몸인데 어느 순간 팽창되면 저 밑에 있는 저, 균열이 쭉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저 틈새에 따른 두께나 사슴 크기 이런 것들은 저기에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요. 그래서 두께는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보다 조금 넓게 하면 그런 거는 좀 방지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그럼 채점해서 만약에 통과된 점수가 나오면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예.

○○○ 이 작가는 틈새로 저거를 많이 해요.

○○○ 예?

○○○ 저 틈새를 항상 연출하는 작가예요.

○○○ 예, 그런데...

○○○ 그동안 쪽 해 와서.

○○○ 그럼 뒤, 시행착오가 거의 없겠네요, 예. 네,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10. 서구 경서동 124-74

23) <사색(Philosophize)-구름 문(Cloud Gate)>

위원장 예, 23번. 이어서 23번 <사색(Philosophize)-구름 문(Cloud Gate)>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23번 <사색(Philosophize)-구름 문(Cloud Gate)>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데 저 작품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봤는데 조형물로서는 그러니까 모뉴멘탈 하다고 할까,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거로 지금까지 이렇게 매일 올망졸망한 그런 작품만 보다가 시원하고 좀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요.

- 조각 작품이 아니라 모뉴멘탈 작품에 가까운
- 아
- 뭐, 그게 그거죠. 또, 또 다른 의견?
- 얼굴을 있잖아요. 그 ** 하는 것, 그런 원리의 공간을 끌어들이던 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직 ** 연관성이 약간 이질적이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 저기... 예.
- 이질적인 것을 잘 어울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 21번 작가하고 동일 작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 아, 그래요?
- 같은 작가예요?
- 서 기 예, 같은 작가입니다.
- 아, 이 작품 스타일도 이게 좀 틀린데. 근데 지금 이 작품 자체에는 이렇게 뭐 흠을 잡을 거는 없어요, 저는. 예,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하려면 안전성 같은 거를 해가지고, 안전한 거는 뭐, 안전한 것 같아서.
- 아, 네.
- 크게 그냥 이 작품 자체에서는 큰 문제는 못 느꼈어요.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예, 채점하셔도 좋겠습니다.

(채점 중)

11.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9블록 1, 2로트

24) <상상의 숲-까치 호랑이>

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24번 <상상의 숲-까치 호랑이>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24번 <상상의 숲-까치 호랑이>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를 갖고 많이 작품을 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는 좋은 작품들이 신화나 설화 혹은 그들이 그 성경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데서 많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한번 까치와 호랑이를 만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때 실패를 했지만. 요즘 작가들 중에서 저렇게 우리나라 고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낸 작가, 조각가들이 별로 없거든요. 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도 보면 같은 작품, 비슷한 작품이 있기는 한데 저 작가는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특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쪽으로 하니까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형태를 떠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 민화를 가지고 우리 것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민화를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게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 대나무의 두께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대나무... 저도 이제 그거를 좀 봤는데

○○○ 두께가 약간씩 다양했으면 하는. 굵기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는 저게 지금 같은 건지 아니면 약간 다른 건지.

- 저는 이게 좀 밑에는 좀 두껍고 위에는 좀 얇아져서. 이게 대나무 두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인 대나무가.
- 그렇죠, 그렇죠.
- 그래서 뭐, 아주 굵거나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건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 기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파이프를 연결을 해가지고 중간에 또 파이프를 또 조금 적게 연결하고, 또 적게 연결해서 이렇게 테이퍼로 이렇게 좁아지는 표현 기법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대나무를 표현한 기법이. 그래서 저도 지금 봤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잘 표현된 거는 저는 조명을 또 나무 위에다 넣어서 야간에도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가 될 것 같아서 좋게 봤습니다.
- 우리나라의 롯데타워가 대나무 공법으로 지어진 거죠. 그래요. 구조가, 구조에, 구조가 들어가고, 구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바람에 그게 흔들림에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그 공법이라고.
- 이 작품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테이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 기법을 되게,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네, 작품이 이야기 구조, 서사 구조로 돼 있고 또 집합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채점을 해주시고요.

(채점 중)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위원장

가결 작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은 안전번호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그다음에 14번, 15번, 16번, 17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이렇게 가결되었습니다. 부결은 안전번호 5번, 6번, 7번 그다음에 18번, 19번입니다. 가결된 것 중에서는 조건부 또는 권고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 작품 중 조건부 가결이나 권고 사항 가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의견을 보면 1번 회화, <숲속의 소리> 같은 경우는 벽체 두께가 30mm인데 앵커 피스 길이가 50mm이면 역할을 할 수 없고 또 대리석과 옹벽과도 30에서 40mm 추가 공간이 있으니 길이 증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주변에 문 개폐로 고정이 불안하니 하부의 고정 방법을 제시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건을, 조건에 또 다른 조건 있으신가요? 예, 이 조건을 전제로 해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물어볼까요? 또 다른... 다른 조건을 그... 작품을 볼 수 없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작품이 아니라 이제 고정 방법에 대한 걸 말씀해주신 것 같으세요.

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서 기

이제 조건부로 넣는 거에 이제 위원들의 동의를 하시는... 과반수 이상 동의하시는지, 그거를

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조건부로 달아야 될지, 또... 예, 한번 의견이 그 거수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조건부 통과, 이 조건으로 아까, 예. 조건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하는 분들은 거수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반수 이상이 손을 들으면 통과하죠?

예, 예. 예, 조건부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2번 역시 벽체 두께가 30mm인데 앵커 피스 길이가 50mm이면 역할을 할 수 없고 대리석과 웅벽과도 3~40mm 추가 공간이 있으니 길이 증가에 대해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서 기
위원장

그 길이 증가로 작성할까요?

네. 또 다른... 예. 이 의견에 대해 혹시 더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럼 이 의견, 이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거수를 통해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그럼 2번도 이 조건부로 통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네, 3번도 역시 2번과 같은 조건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것도 그러면 이 조건으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번도 이런 조건으로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4번, 조각 작품. 기둥 4개와 베이스 플레이트를 용접하여야 하나, 안쪽 공이 협소하여 용접이 어려우니 리브플레이트를 이용하여 고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미표기. 예, 콘크리트 강도를 표시를 안 했고 앵커 길이 150에서 200mm로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빗공해 없도록 휘도 수치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 조건으로 가결을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예, 8번, 벽의 두께가 30mm인데 앵커 피스 길이가 50mm이면 역할을 할 수 없고 대리석과 웅벽과도 30~40mm 추가 공간이 있으니 길이 증가에 대해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건부? 예, 없으시면 이 조건으로 전제로 해서 통과하는 거로, 찬성하시면 거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작품도 이 조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심의번호 9번 역시 전과 동일한 요구를 했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9번 <명경지수-바라봄과 깨달음> 이것도 아까와 같은 조건으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 10번 역시 아까와 같은 조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조건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번도 조건부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번 <Pink Panda>입니다. 기초부 콘크리트 강도 표시, 기초부 철근, 배근 필요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 조건을 전제로 해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11번 <Pink Panda>도 조건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번 풍요, 기초판에 철근 배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앵커 개수 길이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고, 붓과 바닥에서 높이가 1.1m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어떤 그 대처를 요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 조건부로서 접근하여 매달렸을 때 파손될 수 있으므로 구조 안전 확인서상 자중 풍하중의 적재 즉, 매달린 하중 고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이 조건으로 통과 되는 것에 찬성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번 <풍요-Opulent Dream>도 조건부 통과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봄의 기운>. 기초판 콘크리트 강도를 미제시 했다고 지적했고, 앵커 길이 및 개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통과하는 것으로 찬성하는 분들, 위원님들 거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통과된 것으로, <봄의 기운도>도 통과된 것으로, 조건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4번 <Cloud Tree> 베이스 플레이트 크기, 두께, 간격의

치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세트 앵커 개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니까? 예, 그럼 이거를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6번 <실크 스카프>. 콘크리트 노출 등급에 따른 압축 강도 측면에서 21mpa는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판의 철근 규격 백은 미세시, 앵커 길이 130mm로 짧음, 리버 플레이트 표기 미세시 이런 내용을 적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혹시 조건을 더 말씀할... 그 하단부 예리하고 뾰족한 부분이 안전성에 문제가 보이니까 이것을 보완할 것도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럼 이 조건을 수용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 기 위원장님, 아까 15번에 요구는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위원장 15번을 보니까 ○○○ 위원님은
서 기 철근 규격과 배근 미세시에 대한
위원장 그 15번이 ○○○ 위원님께서 일단은 100점 만점에 부결 점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평균을 통해서 통과를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통과하는 거로 우리가 일단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견 있으신 분 있으니까? 15번.

서 기 15번이요?
위원장 예, 15번 <기운생동>. 네, 그럼 이 조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조건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거울? 미리 수준의 3차 연마로... 아, 그런. 빗공해가 심하니 휘도 수치 확인을 요구하셨고 그러니까 너무 반짝반짝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기초판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을 제시하지 않았고, 앵커볼트 규격 길이, 개수를 제시하지 않았고, 리브 플레이트 두께, 개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각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지 않다 보니까 작품 규정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할 경우에 통과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다른 분들 또 반대하시는 분 없죠?

(“네.”)

위원장 됐습니까? 예, 그럼 이것도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15번. 아까 거수했었는데 다시 한 번 거수해서 통과, 찬성. 예, 예. 이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7번 기하학적 추상, 리브 플레이트 두께, 간격 미제시, 그렇죠? 네. 앵커 개수, 콘크리트 강도 미제시. 일단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 플레이트 두께, 간격 미제시. 앵커 개수 콘크리트 강도 미제시. 예, 여기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는데 또 다른 보완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요 조건으로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지역 <Geometrical Tree>는 조건부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0번 <시간의 흐름>. 벽체 마감이 대리석인지 확인하

고, 대리석과 옹벽과의 공간이 3~40mm 있으니 앵커 길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고로 그 캔버스 사이즈는 지금 통과된 작품은 100호 맞고요. 탈락된 그 전 작품은 80호에서 90호, 100호 사이입니다.

위원장 네.

○○○ 사이즈가.

위원장 네. 그러면 요 조건으로, 요 조건의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할까요? 네, 그럼 이 조건을 전제로 해서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예, 20번 <시간의 흐름>. 이 조건으로 전제로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1번 <물결치는 달빛(The Waving Moonlight)> 빛공해 관해 휘도 수치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베이트 플레이트 크기, 재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21번 <물결치는 달빛(The Waving Moonlight)>은 이 조건으로 통과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2번 <RENEW-문명과 자연> 여기에서 빛공해가 없도록 휘도 수치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강도, 기초 철근 간격, 앵커 길이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고, 사슴에 대한 크기, 다리 굵기,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았고, 수직 틈새를 조금 넓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니까? 자, 이거 조건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조건부.

서 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이십니다.

위원장 네, 그러면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시 진행해 가겠습니다. 심의번호 23 <사색(Philosophize)-구름 문(Cloud Gate)>입니다. 여기에 대해 조건부 사유로서 빛공해가 없도록 휘도 수치 확

인과 베이스 플레이트 재질을 미제시했다는 것, 그다음에 앵커 플레이트 길이 150에서 200mm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세요. 예,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건부 통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이게. 24번 <상상의 숲-까치 호랑이>. 예, 이 작품은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로 두께 10mm 부족하다, 크기가 미제시 됐고. 콘크리트 강도 미제시. 그다음에 손을 넣고 내리면 끼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이것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예, 없으면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아, 가결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예,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 기 손 끼는 거는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하면 될까요?

○○○ 그 손이 끼일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서 기 그 대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 대나무 줄기로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 기 아, 대나무 줄기 사이요

○○○ 예, 예, 예.

서 기 이렇게 해서 정리해도 될까요?

○○○ 예.

위원장 예, 그러면 조건부로 가결을 하는 작품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을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건의 심의 안건 중 19건은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부결은 5번, 6번, 7번 그다음에 18번, 19번 이 작품들은

부결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예, 이것으로서 2023년 3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녹 취 끝 -